

시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세미나를 통해 소통한다. 세미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연구한다. 또 보다 큰 학회를 열어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 발표를 하고 이를 여론화한다. 최근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2024 정기 학술대회' '광주광역시 양자 정보기술 전문가 세미나' '광주창업생태계 활성화 세미나' '한국기계공학학회 2024 춘계 학술대회' 등을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했다. 앞으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지산학과 연계해 이런 행사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왜 학회와 세미나를 연달아 개최하고 유지하는가. 광주를 살릴 미래 과제를 찾기 위해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시대에 해야 할 기술은 많으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선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다. 올해 정부는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

세미나 좀 하실까요

자, 지방에서 추진해야 할 정부 과제들에 대한 매칭이 힘들어졌다. 이리다 보니 과학기술 산업 분야 산학연 현장에서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 단위마다 추진과제들이 매칭불가로 신청도 못하거나 매칭이 되어도 과거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선정도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에서 요청은 밀려오는데 재정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미나 학회 등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세미나와 학회의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관련 주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정책 필요성을 알렸다. 두 학회는 많은 참가자들이와 부수적으로 광주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광주 홍보에도 기여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다.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학술대회'에 대해 '국내 반도체 전문가 광주로 총출동'이라며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역시 삼성, SK하이닉스 등 AI 기술을 반도체에 결합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신기술 등이 발표됐고, 광주에서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산업융성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광주 전남 AI 반도체 패키징단지 지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지역 지자체는 다시 전열을 가

다듬어 정부에 특화단지 지정을 요구하고, 정부 역시 광주·전남 AI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 '양자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양자세미나도 전국 및 지역의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광주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인 광산업·인공지능 데이터산업과 양자 기술을 연계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들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정보통신 기술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정부정책과 광주의 인공지능 데이터 광기술과 잘 접목시켜 사업을 만들게 되면 정부의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 창업도시육성정책도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과 창업실증을 더욱 확장하는 독창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함을 공감했다. 총선이 끝났다. 이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복원시키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려울 때는 공감과 협동이 문제해결의 길이다. 지자체, 국회, 산학연이 세미나 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 세미나 좀 합시다.

社說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학교폭력 가볍게 볼 일 아냐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유명인들 사이 논란이 확산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선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다. 신체·정신적 고통 속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중대 범죄다.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 수가 2023년 2천4명으로 2021년 1천148명, 2022년 1천703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전남의 경우도 2021년 1천866명, 2022년 2천370명, 2023년 2천30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강요 순이었다. 특히 언어폭력에서 시작해 신체폭력으로 번지는 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정상 등교 및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에 따른 것인데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같은 학교 및 동급생 사이 뿐 아니라 선·후배 등 다양한 관계 및 공간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확인돼 단순 교내 지도만으로는 예방하기 쉽지 않다. 교육청은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학교 자체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장난으로 치부되곤 했던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비대면 사회를 겪으며 학교를 초월해 광범위한 폭력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악명 강한 사이버 공간으로 다양해지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실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사나 어른 시각에선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서 시작돼 번지는 경우도 많다.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보단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의 관리 만으로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해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다. 학교폭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 결코 가볍지 않다.

삼성전자 협업 광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환영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장이 대세가 됐다. 광주시가 올해 고도화단계 30곳, 기초단계 20곳 등 50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업이 이뤄지는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을 20개사 목표로 추진해 관심이 높다.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킷아웃' 행사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할 것을 계기로 지속 협의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현지 전문가가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물류·환경 등 분야별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가공·자동화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협력기업까지 패밀리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삼성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인력양성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지역기업 입장에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다.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면 산업재하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케이(K)-방역에 큰 보탬이 됐다. 이번에 대중소 연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시장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 제조기업 모두에 문이 열려 있다. 우수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기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소기업이 뜻을 모아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광주형 성공모델의 확산을 기대한다.

기고



조성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가 결성돼 보건복지부 대표와 의사협회 대표가 2차례의 회의를 갖고 논의를 하는 중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2천명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의과대학에 정원은 40곳 3천300명이다. 이에 의료계가 "의정협의체에서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한 것은 무엇이나"고 묻자, 의과장들께 물어서 얻는 수요 조사라고 언급했다. 그 후 3월 정부는 의대정원 2천명을 증원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지방대학 중심으로 구체적인 인원까지 배정됐다. 충북의대의 경우 현 정원이 49명인데 200명으로 증원한다고 말해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을 보면 본과에서 기초의학(해부학, 약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예방의학, 병리학)을 1-2년 공부한 후 임상과목을 배우고 임상실습을 하고 의사고시와 함

의대정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께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로 배출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의사단체는 대부분 보수성향이 강해 국민의 힘을 지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강압적으로 밀어 부치고 의사를 악마화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킴으로 반 윤석열로 선화해 박빙인 수도권의 국회의원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집권여당의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집스런 불통 이미지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 현장으로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의 의료 대책은 과연 몇 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가?"라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한참을 계시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땀질식으로 해결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음이 답답했다.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데 의료정책을 즉흥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며 수긍이 갔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도 "많은 국민이 의

료개혁에 동의해도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과국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고 말한다. 공정하고 적절한 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와 피로감이 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내린 면허정지와 전공의들을 협박하는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길 바란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빨리 환자 곁으로 가고 싶다. 대한민국 의료는 전 국민 개보험과 저수가로 인해 본인의 부담이 적으면서 병원 접근성이 세계 제1위이다. 의료 기술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를 퇴행시키지 말고 정리의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 주시고, 의대 정원의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정원을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봄철 눈·발두령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등 화재가 발생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불티가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

지를 당부한다. 첫째,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눈·발두령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력

과 장비가 동원되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무엇보다 한번 잣대미로 변한 우리의 산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사전 예방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습관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뿐 아니라 타인과 자연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지연·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보이스피싱,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

평소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오는 문자, 정체불명의 URL이 담긴 문자가 온다면 '혹시 스미싱은 아닐까'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의심하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보다 더 교묘하게 진화한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청화·순천경찰서 예방파출소>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특히 금융감독원(1332)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1만9천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무려 4천5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스미싱도 활개를 치고 있다. 주로 부고나 청첩장, 택배 송장 확인, 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이렇게 감염된 스마트폰은 '좀비폰'이 되고 만다.

그래픽 뉴스

원/달러 환율, 중동 긴장고조에 연고점 또 경신...1,380원대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3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장보다 66원 오른 1,382.0원에 개장해 장 초반 한때 1,386.3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해 인플레이션(절대 상승)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133엔대 후반으로 급등하며 190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제정환율은 100엔당 889.72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897.63원)보다 2.09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규토독월 15,000원 1부 800원